

민주당 박주선 최고위원 인터뷰

“기준·원칙없는 ‘호남 물갈이’ 안돼”

내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민주당 내부에서 변화와 개혁의 바람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호남 물갈이론’에 대해 박주선 의원은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박주선 의원은 12일 광주일보와 인터뷰에서 ‘호남 물갈이론’은 결국 민주당의 뿌리인 호남을 ‘멸해’하는 것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다음은 일문일답.

-내년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의 정치적 뒷받침 호남에서부터 물갈이를 통해 개혁 공천의 물꼬를 터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대선·총선 개혁공천 동의 ‘합리적 교체’ 이뤄져야

▲대선과 총선 승리를 위한 공천 개혁에는 동의한다. 하지만 원칙과 기준 없이 여론몰이식이나 인위적인 방법을 통한 호남 물갈이는 있을 수 없다. 민심과 원칙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교체’가 이뤄져야 한다.

-탈 호남을 통한 전국정당화 얘기도 거론되고 있다.

▲민주당은 호남의 땅과 피와 눈물로 만든 정당이다. 민주당은 변함없는 호남 민심의 지지에 감사하고 고마워해야 한다. 탈 호남의 한계는 과거 열린우리당의 실패에서 증명됐다. 호남의 지지를 공고히 하고 이를 기반으로 전국정당화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호남 물갈이의 배경에는 지역 정치권의 무기력도 작용하고 있다.

-내년 총선에서 야권 연대가 이뤄진다면 민주당이 광주·전남 지역구 2곳 정도는 양보해야 한다는 관측이다.

▲산술적 접근은 야권연대의 정신을 훼손하는 것이다. 일방적인 양보나 무공천 등은 더 이상 있을 수 없으며 원칙과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 야권연대로 민노당 후보가 당선된 순천 지역구도 마찬가지다.

-민주당 개혁특위가 현역 국회의원의 경선 참여를 제한하는 평가지수를 개발하는 한편 국민배심원제 운용을 통한 ‘슈퍼스타 K’ 방식의 경선

국민참여당과 先통합 후 단계적 야권대통합을

방안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객관적 평가지수는 기준에 따라 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좀 더 치열한 논의가 필요하다. 또한, 슈퍼스타 K 방식은 배심원단 구성에서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회의적이다.

-당권 및 대권 도전을 놓고 고민하고 있는데.

▲민주당의 정권재창출을 위한 어떠한 역할이라도 하겠다. 최종 입장은 적절한 시기에 밝히겠다.

-순화구 대표의 리더십을 평가한다면.

▲긴 호흡을 바탕으로 한 강력한 화합의 리더십을 갖고 있다. 하지만 민주당의 정체성과 관련된 현안에 있어서는 보다 신중한 자세가 필요하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50대 이상 취업자 800만명 넘어

전체 취업자의 33%... 노동력 고령화 뚜렷

저출산 고령화 현상이 심화하면서 50대 취업자가 500만명을 돌파했다. 50대 이상의 취업자도 800만명을 넘어 고령층 취업자 비중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또 최대 노동력 공급원이 30대와 40대에서 50대 이상으로 변화하는 등 인구구조의 고령화가 노동력도 고령화시키는 결과를 낳고 있다.

12일 통계청에 따르면 4월 현재 50대 이상 취업자 수는 802만2000명으로 전월(770만9000명)보다 31만3000명 증가하면서 800만명 선을 첫 돌파했다.

20년 전인 1991년 4월 403만1천명의 배에 가까운 수준이며, 10년 전인 2001년 4월 510만3천명과 비교해도 10년 새 300만명 가량 증가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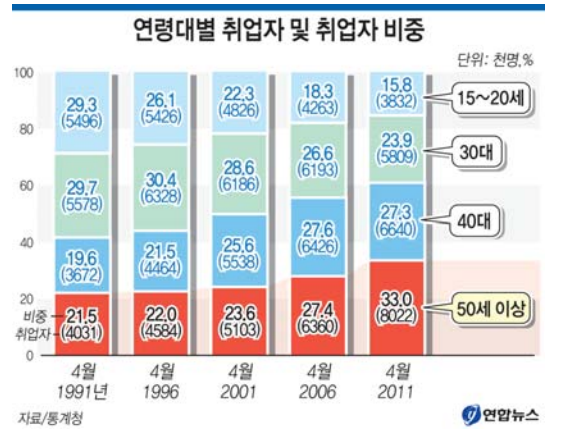
전체 취업자 2천430만3천명 중 50대 이상이 차지하는 비중은 33.0%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예전같으면 이미 은퇴했거나 은퇴를 준비 중이었을 고령층 취업자가 크게 늘어난 것은 50대 취업자가 급증했기 때문이다.

최대 노동력을 공급하는 연령대도 30대와 40대에서 50대 이상으로 전환했다. 올 4월 기준으로는 50대 이상이 33.0%로 수위에 올랐다.

더욱이 최근 들어 청년층 비중이 급감하고 50대 이상이 급증하는 등 저출산 고령화의 여파로 노동력마저



고령화되는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 10년 전과 비교해 청년층 취업자과 30대 취업자 비중은 각각 6.5%, 4.7%포인트 감소했으나 40대는 1.7%포인트 상승하고, 50대 이상은 9.4%포인트나 높아졌다.

이는 고령화에 따른 자연스런 현상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적잖은 사회적 불안 요인을 내포하고 있어 이를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연말뉴스

“외국인 조세감면 탄력 적용돼야”

‘광양항 경제자유구역 활성화’ 간담회

국회사무처 법제실은 13일 오후 광양시 월드마린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50대 이상 취업자 800만명 돌파 기념 간담회에서 박주선 의원과 함께 ‘경제자유구역 활성화’와 ‘항만 활성화’를 주제로 임법지인 간담회를 갖는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경제자유구역 활성화’를 주제로 국가경쟁력 강화하고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지정된 경제자유구역 지정의 본 뜻을 살릴 수 있는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현재 자유구역에는 법인세 등 각종 세제감면 및 외국인 정주환경 개선과 관련한 규제완화 조치들이 시행되고 있으나, 외국인 투자유치 확대에 대한 효과성 측면에서 다른 지역과 충분한 차별성이 없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따라서 이번 간담회에서 지역전문가들과 현지 주민들이 함께 참여한 가운데 외국인 투자기업의 경영환경과 외국인의 생활 여건 개선, 외국인

조세감면 등 투자유치를 위한 인센티브를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질 전망이다.

유은근 의원과 국회 법제실은 이번 간담회가 일과성 행사에 그치지 않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여 경제자유구역과 항만 활성화에 필요한 입법적 대안을 마련하는데 공동으로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권오는 국회 사무총장은 “국회의원들의 입법활동이 지역구 현장과 소통할 수 있도록 찾아가는 입법지원 서비스를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라고 밝혔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MB 정권 서민 삶 피해... 내년 정권탈환해야”

김정길 전 장관 광주서 특강

김정길 전 행정자치부장관이 12일 광주에서 이명박 정권의 실정을 강도 높게 비판하고 2012년 대선에서 민주당의 정권탈환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광주시장에인연합회와 국민포럼 러브코리아 공동주최로 광주서 북구 동림동 시립 장애인복지관에서 장애인·시민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해졌다”며 “국민들은 일자리 불안·보육 및 교육불안·주거불안·노후불

특강을 한 김 전장관은 “이명박 정권 3년동안 경제와 사회 양극화 현상속에 서민과 장애인에 우의 삶은 피해 해졌다”며 “국민들은 일자리 불안·보육 및 교육불안·주거불안·노후불

안·건강불안·안보불안·미래 희망부재의 불안등 7대 불안에 떨고있다”고 현정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김 전장관은 “7대불안은 신자유주의·신냉전주의·불통과 독단의 지도자로 인해 발생하고있다”며 “대기업 위주의 경제정책을 중소기업위주로 개편하고 사회적 약자를 위한 실질적 복지정책들을 행동에 옮기기 위해 내년 대선에서 현정권을 심판해야한다고 역설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선출직 공약실천 조례 북구의회, 전국 최초로 발의

광주 북구의회가 선출직 공무원과 의원들의 공약 실천 상황을 점검하는 조례안을 전국 최초로 발의했다.

광주 북구의회는 구의회 행정자치위원회 김상훈(민노) 의원이 ‘공약 실천을 위한 기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조례안은 구청장과 구의원들의 공약 이행을 평가하는 ‘공약이행 평가단’을 구성해 공약사업, 의정 활동 계획서의 실천 상황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주민에게 공개하도록 했다. 이 조례안은 오는 20일 상임위원회와 26일 본회의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최권일기자 cki@

美, 테러계획 담은 빈라덴 일기장 입수

테러조직 알 카에다의 지도자 오사마 빈 라덴이 테러의 목표와 실행 방법 등을 상세하게 기록한 일기장이 빈 라덴 제거작전 과정에서 미군 특수부대에 의해 입수됐다고 AP통신이 익명의 미 정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1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빈 라덴이 직접 손으로 쓴 이 일기장은 10~20쪽 분량으로 계획 중인 테러의 구성과 세부 실행계획이 빼곡히 들어 있어 미 정보 당국의 입장에서 더없이 귀중한 정보라고 AP는 전했다.

미 정보 관리들은 CBS뉴스에서 40여 분간 진행된 작전에서 빈 라덴은 ‘비교적 일찍’ 사살됐고 대원들은 나머지 시간에 빈 라덴 은신처에서 있는 서류들과 컴퓨터, 하드드라이브, CD 등을 모으는 데 힘썼다고 말했다. 입수된 자료는 모두 2.7테라바이트, 문서로는 2억2000만쪽 분량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 중앙정보국(CIA)은 이후 하루 24시간 이들 자료를 분석하고 있다.

빈 라덴의 일기에는 입박한 테러 계획에 대한 정보는 드러나 있지 않지만 그가 구상한 후속 테러 계획과 미국의 대 이라크정책에 대한 견해 등이 드러나 있다. 그중에는 뉴욕만을 테러 표적으로 삼지 말고 로스앤젤레스와 여타 중소도시 등으로 목표를 확대해야 한다는 내용과 함께 9·11테러와 같이 수천명의 인명을 살상하는 것만이 미국의 아랍에 대한 정책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견해도 담겨 있다.

올해 9·11테러 10주년을 맞아 미국 내에서 열차를 교량이나 계곡 등에서 탈선시켜 대규모로 인명을 살상하는 테러를 감행하려는 계획도 빈 라덴의 일기장에서 확인된 정보다.

/연합뉴스

Large advertisement for Segistar (세기스타) featuring a cityscape background and the text '세기보청기 세기의 무대는 세계입니다!' (Segistar Hearing Aids: The stage of the century is the world!). It includes contact information for Segistar Korea and various certification logos like FDA, CE, and GMP.

Footer section containing various certification logos (FDA, CE, GMP, ISO, etc.), contact numbers (1588-8499, 021538-9388), and a map of the company's regional offices across South Korea.